

이상원 | 부전문위원 (제 7026)

- 주요 뉴스: 연말 거래량 감소 속 새해를 앞둔 포트폴리오 재조정 영향력 증대
 - 미국 경제지표 혼조, 완만한 성장둔화 조짐(NY Fed Nowcast 4Q +1.86% 추정)
 -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25.2.23일) 실시 명령
 - 일본은행(BOJ) 12월 금정위 의사록(요약본), 신중한 금리인상 검토 시사
 - 국제금융시장: 미국 고금리 장기화 우려,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주된 동인
 - 미국 주가 하락[-1.1%], 달러화 약보합[-0.1%], 미국 금리 상승[+5bp]
 - 추가: 미국 S&P500지수는 고금리 부담 누증,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금융·헬스케어주의 강세에 힘입어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 연말 휴가철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제한된 움직임
유로화 가치는 0.04% 상승, 엔화 가치는 0.08% 상승
 - 금리: 미국(10년물)은 경제지표 혼조 속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유지되면서 상승
독일은 조기총선(25.2월) 등과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8bp 상승
- ※ 뉴욕 1M NDF 증가 1473.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4.5원, 0.27% 하락). 한국 CDS 보합

		12/27일	12/26일	전일대비			12/27일	12/2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70.8	6,037.6	-1.11%	국제 금리 10y	미국	4.63%	4.58%	+5bp
	유럽	507.18	휴장	+0.67%		독일	2.40%	휴장	+8bp
	중국	3400.14	3,398.1	+0.06%		영국	4.63%	휴장	+5bp
	일본	40,281	39,568	+1.80%	CDS 5y	한국	37bp	37bp	-0bp
	한국	2,404.8	2,429.7	-1.02%		중국	65bp	65bp	+0bp
환율	달러지수	108.01	108.13	-0.11%	위험 지표	EMBI+	-	367bp	-
	유로화	1.0426	1.0422	+0.04%		VIX	15.95	14.73	+8.28%
	엔화	157.87	157.99	+0.08%		WTI유	70.60	69.62	+1.41%
	위안화	7.2960	7.2979	+0.03%	원자재	구리	406.25	407.2	-0.23%
	원화	1,470.5	1,469.6	-0.06%		금	2,621.4	2,633.6	-0.4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말 거래량 감소 속 새해를 앞둔 포트폴리오 재조정 영향력 증대

- 최근 미국 주가가 2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계절적 요인(휴가철 거래량 감소)에 의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점이 원인으로 지목
 - 연말 전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하는 연기금 및 대형 펀드가 예상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Interactive Brokers), 지난 2년 간 강세장을 거쳐왔고 최근 자본비용(금리)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일부 자금이 새해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Glenmede)
 - 연말에는 휴일이 몰려있고 거래량이 적어 주가 움직임이 과장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고(SlateStone Wealth)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경제지표 혼조, 4분기 완만한 성장둔화 조짐

- 상품수지는 적자가 소폭 확대(10월 -\$983억 → 11월 -\$1,029억)되었고 도매재고는 감소세로 전환(10월 +0.1%이하 mom → 11월 -0.2%)되었으며, 소매재고는 증가세가 강화(10월 +0.1% → 11월 +0.3%)되는 등 대체로 증감 폭은 작고 방향성은 상이
- 뉴욕 연은의 Nowcast에 기반한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의 예상치는 12.20일 1.90%에서 27일 1.86%로 하락(아틀란타 연은 GDPNow는 12.24일 3.1%)했으며 Citi의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동 기간 10.2에서 3.2(10.1일 이후 최저)로 하락

■ 독일 대통령,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 명령

-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행동할 수 있는 정부와 믿을 만한 다수당이 있어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기 총선이 올바른 방향이고 그 후에는 문제 해결이 정치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일본은행(BOJ) 12월 금정위 의사록, 신중한 금리인상 검토 시사

- “엔화 약세 진행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기초적 물가상승과 「물가안정 목표」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 “조정 타이밍은 여러 데이터와 정보를 면밀히 점검 후 판단” 등의 기본 방침을 유지

- “일본의 경제와 물가는 금년 3월 시점의 전망대로 전개되고 있어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 등의 신중한 입장이 확인

■ 독일 주요 산업계, '25년에도 경기부진 지속 예상

- 독일경제연구소(IW), 49개의 업종별 협회 중 31개는 현재 상황이 1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에너지·노동·재료에 대한 높은 비용과 과도한 관료주의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불확실성은 수출을 저해하고 국내 정치적 혼란은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

■ 중국 산업이익, 완만한 개선 조짐 불구 여전히 저조한 수준

-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11월 산업이익은 전년동월 대비 7.3% 감소하면서 전월(-10.0%) 대비 감소폭이 둔화. 이에 대해 중국광대은행^{光大银行}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 다만, 누적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1~10월 -4.3%_{yoy} → 1~11월 -4.7%) 되었으며, Reuters는 '24년 전체로는 '11년(또는 '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산업별로는 광업이 -13.2%, 제조업이 4.6% 감소

■ 필리핀중앙은행(BSP), 현행 인플레이션 목표(2~4%) 유지

- '25~'26년 및 '27~'28년에 대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재와 동일한 2~4%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중기적 인플레이션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통화정책 수립에 대한 미래지향적 접근방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4%는 현재의 필리핀 경제 구조 감안 시 물가안정 목표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 태국중앙은행(BOT), 11월 경기둔화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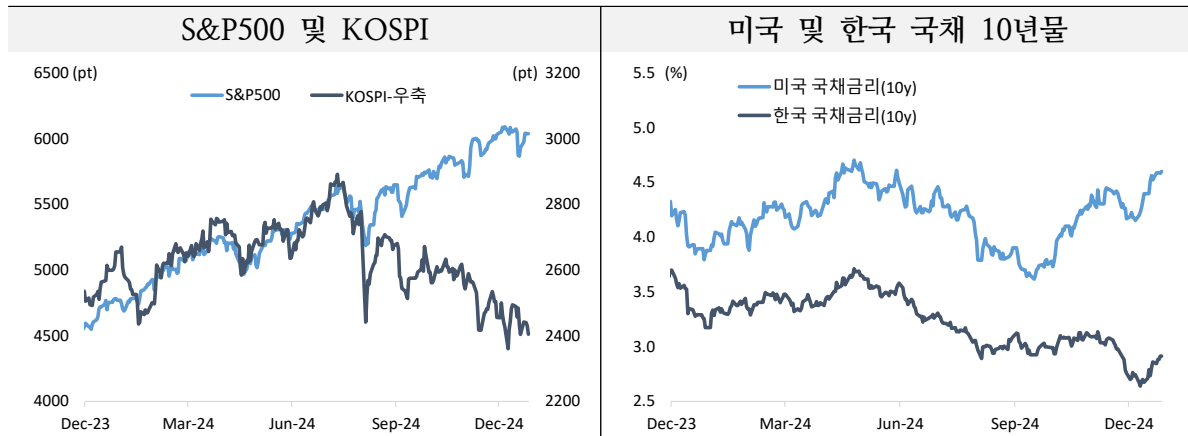
- 11월 경제·통화 여건 보고서를 통해 태국 경제가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평가. 관광 관련 서비스 부문의 확장세가 지속되고 자동차·농산물 등 상품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소비 및 투자와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데 기인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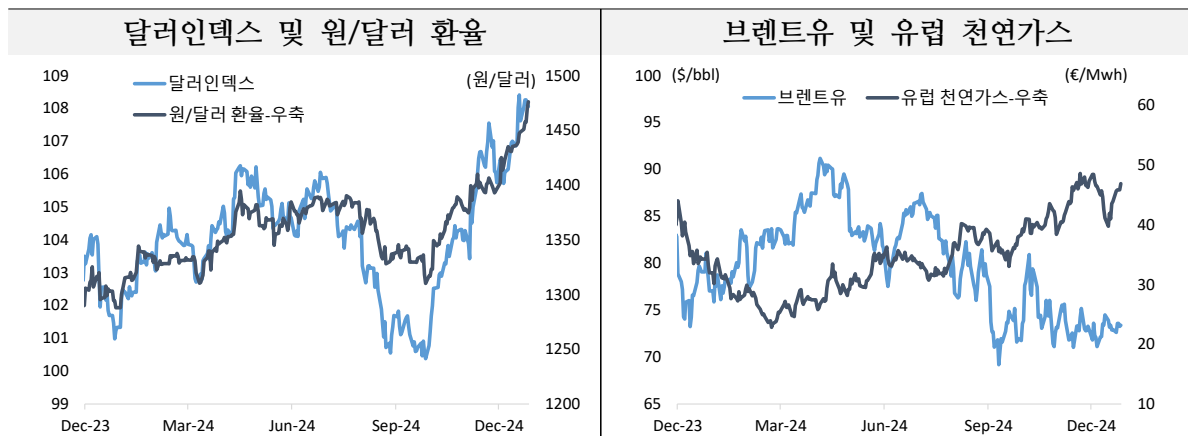
■ 주요 경제 이벤트(12/3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 11월 잠정주택판매지수, 스페인·포르투갈 12월 소비자물가지수, 홍콩 11월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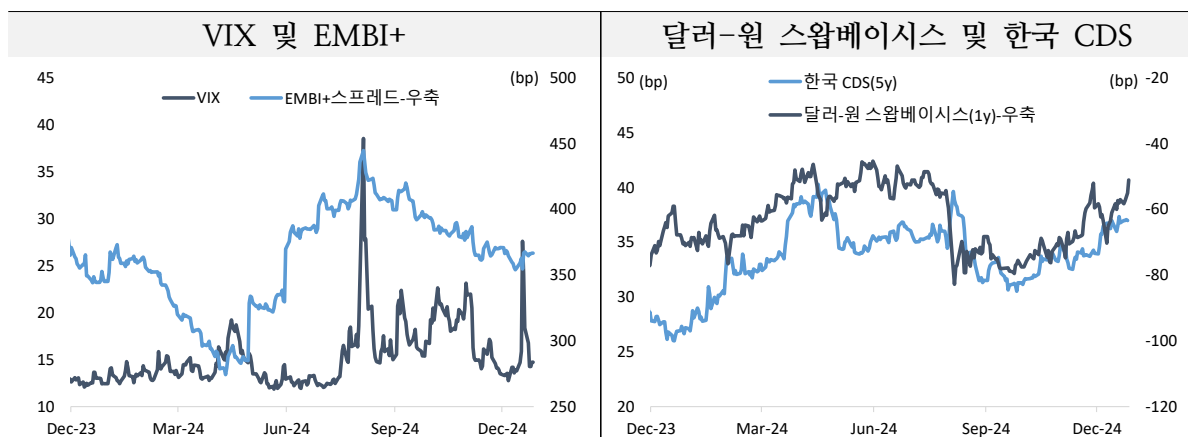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1, E-mail swlee@kcif.or.kr